

“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예수는 진정 누구인가? ”

(마태복음 16: 15-16, 요한복음 14: 6)

1970 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라는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 누구는 한 시대의 지성이요 양심이라 불리던 유진오 박사였습니다. 그 분은 헌법학자로서 우리나라 건국 헌법 초안에 참여하셨고 오랫동안 고대 총장에 몸 담으셨습니다. 노년에는 본의 아니게 집권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에 잠시 휩싸이기도 했으나 그 정치 소용돌이에서 발을 빼신 후 야인으로 조용히 집에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 분과의 약속을 잡고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가까이 있던 필동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집은 단아한 한옥이었습니다. 서재로 안내 되었을 때 박사님은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깨끗한 안색의 노교수는 입고 계신 하늘색 조끼 탓인지 세월을 빗겨 가신 듯한 동안이었습니다. 특 터인 서재에는 책들로 빼곡히 둘러 싸여 있었습니다. 준비했던 질문은 있었지만 서재의 책들과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은 고도에 홀로 가신다면 이 장서 가운데 어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소 의례적 질문이었으나 박사님은 선뜻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요한복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예상외의 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리 응답하신 이유는 거의 50 년이란 시간이 지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제가 당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해인 71 년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갔습니다.

주변에 믿는 자들의 믿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엔 그 권고가 하나같이 같은 소리라 마치 바보들의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교회를 가는 모습이 바보들의 행진으로 비쳤습니다. 그런 저가 1988 년 그 바보들의 행진에 합세했습니다. 더욱 60 세가 다 된 무렵인 2000 년 미국의 한 신학교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신학교에서 사복음서중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나는 불현듯 유진오 박사가 고도에 왜 요한복음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언급 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기록이 보통 절반 이상 중복됩니다. 따라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내용면에서 공관 복음과의 중복이 8% 미만으로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사복음서는 쓴 목적 면에서 다 다른데, 요한복음은 쓴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임을 증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도 여기저기서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마태와 누가에 기록되고 있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질문이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물음도 사실상 예수의 신성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부분적이 아닌 첫 장부터 끝장까지 예수가 하나님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이란 말씀은 영어로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합니다. 이때 나는 길이요의 “나는”은 영어로 I am 이란 구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길이요” 라는 이 I am 이란 형식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모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fe of the world 등이 있는데 이런 I am 이란 형식을 취한 이면에는 요한의 뚜렷한 의도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즉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I am 은 하나님 이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이름 the Eternal I am 을 일곱 가지로 확대 사용한 숨은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 I am 이란 구문의 형식을 통해 예수가 바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역설한 것입니다. 예수의 신성과 관련 요한복음의 많은 증언이 있지만 한가지 사실에 더 주목하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등 공관 복음은 주님의 이야기를 시간이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시작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허상이 아닌 역사 속에 한때 살아서 숨쉬고 있었던 실존 인물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요한은 주님의 이야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출발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실존이 역사란 배경의 시간이란 한계 상황에 묶어 놓을 수 없는 영원 저편에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누구 만이 가능합니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가능한가요? 주님이 시간을 넘어 실존함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20:31 에서 예수가 하나님임을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을 쓴 궁극적 목적이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4 에서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동정녀 잉태라는 초자연적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근본 이유는 신성이신 주님이 인성이신 예수안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표면적으로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아담의 죄를 이어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가 인간 아버지에 의한 아담의 후손이었다면 흠 있는 양으로서 십자가라는 피뿌림의 제단 위에 속죄물로 거부 됐을 것입니다. 즉 원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려는 그리스도 사역에 부적격 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거룩하고 도덕적 순결함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 때 인간들은 이러한 시도를 해온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를 한 이면에는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 넘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불확실성 uncertainty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한 행동이란 업보를 통해 인간 자신의 구원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것은 가장 원시적 종교의 시발점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오늘은 좀 괜찮지만 내일은 그러치는 인간의 행위에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mission impossible 입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은 Christianity 를 Relationship 즉 관계라고 요약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 막는 죄를 못 견디어 하십니다. 따라서 이 죄는 반드시 제거 되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 해야합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를 운영하는데 공동의 선을 이루기기위한 하나의 규범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죄 없는 당신의 아들에게 돌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누구에게 대신 옮기는 것을 죄의 전가 (imputation)라고 하며 신학적으로 중대한 개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이미 설명 했듯이 본질적으로 신성이신 주님이 성령에 의한 동정녀 잉태란 방법으로 아담의 죄를 이어 받지 않은 인성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가

동정녀로 잉태한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 인간의 노력의 소산이 결코 아님을 깨닫게 하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피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속죄양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망'이라는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으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순간 주님은 고전 15:26 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최후의 적인 죽음을 파괴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에 의해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왔던 죽음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Full Spectrum, 즉 전체 그림인 것입니다.

[속회자료]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488 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말씀읽기 마태복음 16:15-16, 요한복음 14:6 절을 읽습니다.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지금까지 당신의 생각속에 머물렀던 예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냥 역사속의 한 인물이었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자주 언급됨으로 막연히 존재했던 분이었나요?
2.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2:19 이 지적하듯 귀신도 이해하는 지적 수준의 동의는 아닌가요?
3. 형제의 삶의 길목에서 남이 대신 울 수 없는 당신의 울음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중대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288 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기도문